
2021년 제11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3. 12. ~ 3. 1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3. 12.	시청률	0.046

【총 평】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로 표현되는 우울증이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변화된 일상과 함께 이를 극복하려는 각종 시도를 의미있게 담은 기획과 구성이 돋보였다. 코로나 우울을 치유하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제공된 로봇인형을 소개한 리포트가 시선을 끌었다. 코로나 속 소통공간으로 등장한 ‘클럽하우스 열풍’ 리포트도 최신 트렌드와 풍속도를 다룬 점이 흡인력을 높였다. 코로나를 소재로 한 <글로벌 리포트>와 <다문화 리포트>는 이민자들 정신건강 지키기, 안전한 한국을 찾는 유학생들을 소재로 관심을 유발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담아냈고, 주말을 맞아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 소식도 아울러 전해 내용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 그리고 생활주변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과 변화들을 취재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질만한 뉴스를 만들어가려는 것이 ‘국민리포트’가 지향해야할 지점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예술, 감성의 옷을 입다, 고양 화전 ‘별말마을’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소통 플랫폼, 클럽하우스 열풍은 음반이나 방송이 아닌 클럽하우스로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고 이용자는 그에 대한 응답을 전하는 방식이다. 가수 호란 씨와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 이용객들의 소감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언급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클럽하우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창업한 음성기반 소셜서비스로 기존 글, 사진, 영상으로 이뤄진 서비스와의 차별점이 있다. ‘코로나 우울’ 홀몸 어르신 돕는 로봇인형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어르신을 위한 대전시 동구의 ‘로봇인형’ 소식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케이스였다. 홀몸 어르신 90여 가구에 돌봄 로봇 인형을 제공했다. 어르신과의 대화는 물론 병원예약 안내, 위급한 상황 시의 자동알림, 몸풀기 안내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예술, 감성의 옷을 입다, 고양 화전 ‘별말마을’은 새 것과 오래된 것의 공존을 담은 메시지가 돋보였고 ‘첨단기술 융합 작품 체험’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원 예술 장르를 가상 체험으로 보여준 점이 이색적이었다. 특히, 주민들이 함께 쓰러져가는 마을을 일으켜 세웠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나무조각가 한선현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진정성 있는 인터뷰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로 부활’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모습이 원로화가의 손끝으로 되살아난 과정을 소개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줬다. 특히, 작가의 의지가 잘 표출됐고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도 충분하게 전달되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3. 13.	시청률	0.068

【총 평】

70년 전, 경상북도 영덕군의 아픈 역사를 다룬 '산간 마을의 비극 - 영덕 민간인 희생 사건'을 방송했다. 시즌1 보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묘사하였고, 증언자들의 생생한 증언 참여, 많은 증언자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역사적 사실과 영상자료의 가치를 높여주었다.

한국전쟁 이후, 유독 좌우 이념 갈등이 컸던 경북 영덕군 지품면의 민간인 희생자들을 다뤄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증언했다. 부친의 무고한 희생을 '운'으로 표현한 영덕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회장의 인터뷰는 역사와 인생에 대한 관조를 담고 있어서 더 안타깝고 씁쓸했다. 특히, 항일운동을 주도한 평민출신 신돌석 장군의 유적지가 있는 경북 영덕군은 항일운동에서 3·1 만세운동으로 독립운동가의 배출이 많은 지역이다.

【구성 및 내용】

영덕군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전말과 왜 영덕군에서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당시 역사적 배경을 들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 산악지대가 많아 빨치산이 많이 숨어 있는 경상북도 지역 중 영덕 군경 토벌 작전 전개 과정에서 무고한 좌익혐의, 부역혐의, 보도연맹원 등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당시 군경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무조건적 체포와 취조, 폭행으로 위협하고 집단 사살까지 무참히 자행했던 생생한 증언이 소개되었다. 어린 청소년이었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이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형제의 희생을 지켜본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은 역사를 통해 다시는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교훈과 함께 국민의 인권에 대해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맘대로 자행해도 되는지 냉정한 관점으로 묻지 않을 수 없게 한 시간이었다. 또한, 희생지라는 안내판은 간단하게 표기해서 길가에 세워두기만 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감 있게 안내판 모양과 내용에 대해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했다.

경북 영덕 보도연맹 희생 사건 유족의 마당 한 가운데에 심어진 한반도 모양의 분재는 60년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경북 영덕 지역의 비극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또 희생 사건 유족 여섯 분의 인터뷰는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억하며 그려내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특히, 해방 이후 좌우익 갈등이 깊어졌고, 강대국들로 인해 분단된 남한은 좌익 색출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을 가져왔다는 점, 특히 경북 영덕군 지품면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군경 토벌 작전의 피해자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유독 컸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들의 희생이 억울했음을 담담하게 잘 그려냈다. 오랜 세월이 그렇게 지나왔음에도 아직도 생생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모습에서 아픔에 대한 처참한 기억을 놓지 못하고 살아온 모습에서 당시 아픔의 상처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가지게 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3. 13.	시청률	0.097

【총 평】

2021년 상반기 개편 첫 방송으로 프로그램 슬로건을 3천 시사토크(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로 내세우며, 새로운 진행자로 팝페라 가수 임형주 씨와 김정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친톡’에서는 ‘연례적·방어적 차원’의 훈련으로 진행되는 ‘3월 한미연합훈련’의 배경을 살펴보고, 남북의 국방력,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ISSUE 텔링’은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의 유치 가능성과 유치시 예산 문제나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통일로 한 발짝 나아가는 디딤돌로서의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까지 전망해 보았다. 특히 ‘친톡’ 형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 관련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한 점, 구성을 새롭게 한 점 등 현실적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친밀도를 높여 주었다.

【구성 및 내용】

팝페라 테너로서 남북한의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특별한 사명의식을 선보인 임형주 씨가 새로운 진행자로 무난하게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친톡’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미연합훈련의 의미, 3월과 8월에 훈련하는 이유, 전 세계 군사력 6위 한국과 28위 북한 군사력 비교, 새로운 군사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의 군사력이 낮은 이유 등 흥미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례적·방어적 차원’의 훈련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하는 훈련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라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남북관계의 근본 문제로 지적하고 종단을 요구한 만큼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시즌에는 북한이 군사공격을 했는데, 한미군사훈련이 국방력 강화라는 점에서 위협을 느낀 북한의 대응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 대해 한국과 북한의 비교를 해주었고 북한이 28위로 한국보다 한참 아래로 밀려있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었다.

‘ISSUE 텔링’은 궁금한 한반도 이야기를 풀어가는 코너로 ‘남북공동올림픽’을 주제를 선정해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호주 브리즈번이 우선협상지로 결정되었지만 우선협상지는 복수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남북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유치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북한의 현재 입장도 섬세하게 접근하고 88올림픽 당시 단일국으로 참가한 독일의 사례를 곁들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게 한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3. 13.	시청률	0.060

【총 평】

‘왕대마을 산골 아리아 - 순천 모후산’은 수청(水淸), 풍청(風淸), 월청(月淸) 세 가지 단어로 산골마을 왕대 주민들의 삶과 모후산의 풍광을 담아냈는데 감성적인 소구력이 있었고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졌다. 특히, 모후산 자락에 위치한 삼청리 마을에서의 다양한 소리를 전해주었다. 개울가에서의 천렵, 봄동 수확, 흑염소들의 식사, 장작불이 타는 모습, 벼짚엮기, 상적암의 스님이 내는 소리 등으로 구성했다.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봄동 부치는 소리까지 섬세하게 포착해낸 것이 인상적이고, 영상이 주는 느낌과 잘 어우러졌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 이펙트로 처리해 인위적인 느낌을 없애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들리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자막으로 스토리라인을 잡고 그 위로 자연의 소리, 삶이 빚어내는 소리를 실어서 사운드멘터리라는 제목에 걸맞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내레이션과 BGM이라는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소리가 주는 느낌으로 승부한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었다.

【구성 및 내용】

왕대마을의 봄을 상징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결정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큰 줄기를 잡고 간결한 자막으로 그 소리가 주는 느낌을 극대화시키려고 한 시도는 본래의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제작의 방향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뭔가를 말해야 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고, 그 결과 선선한 느낌으로 소리 그 자체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모후산 자락,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왕대 마을 산골 지역의 풍경 소리를 소개했다. 지역민들이 시냇가에서 바위를 쳐 물고기를 잡고, 봄동을 캐 염소를 먹이는 등 인간과 자연 속에서 이익을 얻고 이를 다시 나누며 살아가는 풍경이 정겨웠다.

봄동을 흐르는 물에 씻어 전을 부쳐 먹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우러지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풍경 소리들이 많아 친숙했다. 비오는 날 노부부가 벼짚을 엮으며 노래를 부르는 풍경이나 스님이 목탁 소리에 염불을 외는 소리 등 자연 속에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그 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산골 지역민들의 일상 풍경은 지역만의 특색을 담아내면서도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삶의 모습과 맞닿아 있어 정겹고 힐링의 정서를 전했다.

넷가 바위치기 소리, 청명한 바람 소리, 염소가 배추 먹는 소리, 군불 때는 소리, 봄동전 부치는 소리, 겨울비 소리, 빗질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녹차 물 따르는 소리, 청아한 독경 소리 등이 잘 살아나 오감을 만족시켰다. 특히 봄동전 요리, 장작불 타는 장면에서는 시청각은 물론 ‘냄새’ 까지 전해오는 느낌을 주었다. 고즈넉한 산사의 스케치의 풍경소리, 염불소리, 빗질 청소, 녹차 만드는 스님, 고양이와 나누는 독백 등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3. 14.	시청률	0.061

【총 평】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제1회에서 다룬 정책은 ‘초등학교 입학, 우리 아이 돌봄 - 아이 돌봄 확대’를 방송했다. 새 학기를 맞이한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다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특히, 육아에 대해 단지 부모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공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알려주었다.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는 정책과 혜택을 전면 에 내세운 만큼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많이 전달하겠다는 취지가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 및 돌봄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입학, 우리 아이 돌봄 - 아이 돌봄 확대’는 돌봄 서비스부터 건강검진까지 새 학기에 학부모들이 챙겨야 할 정책 내용을 소개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정책 소개, 정책 탄생 배경, 누릴 혜택, 지원 자격, 참여 방법, 정책 궁금증 등을 소개해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 등하교 책임 정책, 초등입학기 자녀 돌봄 시간 선택제 근무, 하교 이후 초등 돌봄 교실 이용, 초등 돌봄 교실 시간 외 보완 사업인 학교 돌봄터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하교 이후 돌봄 교실이나 워킹맘의 경우 면담과 공개수업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궁금한 점을 잘 해결해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반기에 시행될 가족 돌봄 휴가제도와 다함께 돌봄 센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정책과 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방과후에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아동의 안전보장, 시설을 관리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되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 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며, 돌봄 대상의 연령과 돌봄 시간에 따라 시간제와 종일제, 특별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입학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예방접종은 무엇인지를 다뤄 기본적으로 면서도 풍성한 정책을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3. 14.	시청률	0.043

【총 평】

‘진짜 같은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성질, 환경 등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트윈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이를 적용한 전주시의 사례, 스마트시티의 편의성, 디지털 트윈의 활용분야, 디지털 트윈과 관련한 기업사례, 우리 삶의 변화 등을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과 핵심요소, 장점 등을 소개했으며, 디지털트윈이 가져올 여러 가지 혁신적 변화를 알려주었다. ‘디지털트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넘어서 그것이 가져올 혁신 그리고 발전적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었다. 성공한 실패로 일컬어지는 ‘아폴로 13호’와 영화 ‘매트릭스’의 레오 등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 ‘디지털트윈’의 본질인 ‘시뮬레이션’의 개념을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디지털트윈’으로 도시노후화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의 사례를 통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설명했다. 전주 구도심을 ‘버추얼 전주’라는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 등의 관리도 용이해졌고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된다.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은 라이다가 장착된 차량을 활용한다. 이어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그리고 ‘버추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통해 핵심요소는 데이터로 입체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의미 있었다. 부산과 세종 스마트시티는 비어있는 공간에 도시를 구현했고, 전주 스마트시티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만들었다.

디지털 트윈과 우리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확진자 동선에 대한 개인의 안전한 이동 경로를 제한한다던지 자연재난 시의 강도, 종류 등에 따른 적합한 대응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택배, 택시 등도 현실화된다.

디지털 트윈 세계 시장 규모는 2019년 39억 달러 정도였는데 연평균 37.8%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35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트윈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교한 공간정보와 실시간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활용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도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기술의 선도적 개발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3. 14.	시청률	0.000

【총 평】

“코로나19 백신 접종, 어떻게 되고 있나?”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03일 만인 2021년 2월 26일에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시작,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백신 접종 현장을 취재하였다. 그 동안 줄곧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다루고 백신 확보 과정과 안전성 문제를 내세웠다면 접종이 시작된 지금은 백신 우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제 반응 여부를 취재해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질병관리청과 의료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현장을 점검하고, 백신에 대한 궁금증까지 풀어낸 방송이었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언제쯤인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견, 집단 면역 효과를 위한 준비 등을 살펴보면서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백신 접종자의 인터뷰, 백신 접종에 관한 시민들의 걱정, 부작용 사례 등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경북 경산에서 백신을接种한 1호 접종자의 반응을 취재하고 걱정보다 기대를 안고 접종을 하게 된 계기, 접종 후 몸의 반응과 심리적 상태 등을 꽤 구체적으로 소개해서 시선을 끌었고 다른 접종자들의 사례도 짧게 소개했다. 세종시 1호 접종자인 간호사의 사례도 소개했고 이어 국민들의 접종 의지에 대한 통계치를 데이터로 제공해接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통계치뿐만 아니라 실제 인터뷰로 신뢰감을 높였고, 20대 청년부터 고연령의 어르신까지 인터뷰를 준비했다. 또, 접종자의 실제 사례와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接种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백신 접종후의 부작용과 관련, 기저 질환자나 연령에 따른 연관성이 관련돼 있었고 철저한 임상연구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것을 백신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전하였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接种 또한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이 밖에 코로나 백신接种후의 부작용 여부를 살피기 위해接种 전 꼼꼼한 예진과 진찰은 물론接种 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전달해 백신接种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했다.

광주광역시의 대학 병원에서 실제接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고接种 이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모니터링이 되는지, 비상시 어떤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아직接种하지 않은 국민들이 더 많으므로 미리接种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 절대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3. 14.	시청률	0.077

【총 평】

‘4남매를 품은 자연 속 4대의 집’은 4대가 자연 속의 한 집에 살면서 4남매를 홈스쿨링으로 교육하며 자연생활과 체험위주의 어린이 인성교육을 소재로 삼은 점이 주목도를 높였다. 어린이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과 부작용, 청소년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자연을 벗삼아 가정에서 이뤄지는 체험 위주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학습지 보다 자연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행복도 어릴 때부터 경험해 봐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젊은 아버지의 메시지가 큰 울림을 선사했다. 4대의 한가족 살림과 홈스쿨링 자녀 교육을 통해 안락한 가정은 어떠해야하고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 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기획이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초등학교 입학식, 할아버지의 목공 수업, 어머니의 인체 교육, 자연친화적 주말 가족소풍 등으로 사랑, 행복, 건강이 충만한 가족의 일상을 제대로 그려냈다.

【구성 및 내용】

‘4남매를 품은 자연 속 4대의 집’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집에서 4대가 모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소개했다. 홈스쿨링을 하는 4남매와 교육을 하는 엄마, 목공일을 알려주는 할아버지, 그리고 4대가 사는 집, 가족의 하루, 4남매와 부모의 자연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4대가 한곳에 모여 산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소재였고 ‘홈스쿨링’이라는 독특한 교육방식, 대물림되는 사랑의 의미 등 되새겨볼만한 대목이 많았다. 도시를 떠나 자연과 가족의 울타리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으며,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교육하는 부부의 교육 철학은 귀감이 됐다.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시해 유익했으며, 끈끈한 가족의 유대와 정은 힐링의 정서를 전했다. 자연 속에서 4대가 함께 살며, 직접 집을 짓고 교육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프로그램 취지에 잘 맞았다.

아내는 홈스쿨링으로 4남매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지식을 익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녀 교육에 확고한 철학을 갖고 홈스쿨링을 고수하는 주인공의 사례는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관심을 모으는 사연이었다. 어머니의 인체 교육, 할아버지의 목공실습 교육과정이 소개됐는데, 목공체험으로 자녀들에게 절제와 인내심을, 식물재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할머니의 메시지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특히, 일상의 다양한 일과 놀이에서 교육이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남편은 청소년 놀이문화 연구소를 운영하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밝혀 인물의 가치관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시를 떠나 생활하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모습은 자연환경이 주는 교육적 가치가 잘 드러났다.